

“어린이 교육센터 세우자”

조계종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이수경 교수 제안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어린이 불자상 정립과 그 포교 방향성’을 주제로 제24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수경 교수(동국대 불교이동학)는 ‘어린이 발달 특성과 교육의 일관적 이해, 불교적 접근’ 주제 발표에서 ‘불교 어린이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불교에서 아동은 자신이 가진 의지 및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인성으로, 지도자 양성·인재 확보 시급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수행 정신을 통해 결국 깨달음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봤다.

이러한 불교 아동관을 바탕으로 △불교경전 속에서의 아동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문 및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아양한 유아교육기관이나 사찰 어린이법회 등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 지식,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및 사이버 강좌지도 등을 통한 원장 및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불교 어린이 교육센터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 스님(제주 원명선원 원명유지원 원장)은 ‘어린이상과 그 포교 방향성 모색’ 발표에서 어

린어포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학교육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스님은 “지금 중산 상황을 보면 어린이포교는 물론이고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청장년의 후속 단계도 짙은 안개 속에 드리워져 있다”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지도자 양성 등 인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안으로 ‘대학교육기관 설립’과 그에 따른 연구기관 운영’을 들었으며 ‘종립대학 사범대학에 특수형 교육학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린이 지도자 양성 △인성프로그램 개발 △공부한 자연경관 및 전통사찰을 활용한 전인프로그램 개발 △책이나 영상물 제작 △성인법회와 어린이법회 연계 등을 내놓았다.

토론회로 나선 김형숙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는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해 △5·60대 퇴직불교교원을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과 △전국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불교를 활용한 내실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과 △교사불자 연합회, 교육경영직불자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시스템 운영 강화를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도문·원명 스님 등 원로위원 10명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광우·명성 스님 등에 ‘명사법계’ 품수키로

조계종 원로위원회에 도문(대각회 이사장), 원명(통도사 방장), 밀운(봉선사 회주), 명선(홍곡사 주지), 월서(봉곡사 주지), 혜승(고운사 회주), 정무(석남사 주지), 현해(월정사 회주), 고우(전국선원수좌회 설립지도위원), 법홍(전 송광사 주지) 스님이 선출됐다.

또 혜운(운문사 주지), 정화(前

경성암선원 선원장), 광우(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정훈(영화사 회주), 묘엄(봉녕사 주지), 지원(금련사 주지), 명성(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에게 명사법계가 품수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원로위원을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원로위원 중 이두, 도천 스님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로위원은 총 25명이 됐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명사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해 7명의 원로비구니 스님들에게 명사법계를 품수키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지종가 위상 높이는 데 노력”

영축총림방장 원명 스님 추대법회 봉행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가운데)이 통도사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방장실로 향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방장 원명지종 스님 추대법회가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원명 스님은 21일 방장실인 정법전에 입실했다. 이 자리에서 원명 스님은 “화합을 제일 중심으로 하겠다. 자장 스님의 장군이

님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 前 방장 월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지종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짧게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추대법회에서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산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 사부대중은 방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화합하고, 진법도생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은 “그 동안 통도사 방장 문제에 우려와 걱정으로 지켜보아 왔다”며 “방장 스님 추대를 통해 영남불교의 중추적인 양대 본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원명 스님은 “간절히 바라노니 부디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삼라만상 그대로가 마음의 광명이다. 오늘 이 산승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오로지 설법 부처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사부대중들은 산승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릴 지어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추대법회에는 원로위원 지혜, 원명, 혜정, 초우,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회위원, 김양수·주호영 국회의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통도사·남동우 기자

제주 관음사 왜 시끄러웠는가?

‘주지 자격’ 놓고 의견 대립

산중총회 진명 스님 선출...총무원 ‘직대’ 임명

4월 24일 오전 11시,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에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이 내정됐고, 오후 1시 임명장 전달식이 있었다는 소식이 총무원 기획실을 통해 전해왔다. 그러나 곧이어 결탁금지 조항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결국 임명장 전달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오후 6시 시봉 스님에게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전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분여를 앞두고였다. 사안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다”며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관음사 교구 선관위원 전원 호법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음사 회주 증원 스님은 24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승가는 고유의 전통이 있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지후보자는 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과정

문제의 발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 개최 시 2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며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강행했다.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2006년 10월 26일 관음사 교구 중앙총회 의원 선거 시 특정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했다. 그 결과 선거는 무산됐다.

하지만 관음사 교구 스님들은 16일 발표한 촉구서에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수렁청정하며 모든 권리행사를 하려는 증원 스님의 독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들에 따르면 “관음사가 파행으로 치달고 있는 배경에는 종헌중법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관음사 규칙과 회주중심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망은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받은 시봉 스님과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 10여명은 25일 주지직인수인계를 위해 관음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주지직 입구부터 막아선 관음사 신도들의 저지로 인수인계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니 절대 충돌을 피해라”고 당부했다. 시봉 스님도 24일 “증원 스님도 옛날과 달라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강경하지만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해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진명 스님은 26일 제주 지방법원에서 관음사 주지 ‘직무집행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제주 관음사 교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5월 3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쟁점은

문제의 핵심은 주지후보자 자격 문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열린 제175차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는 총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원법 제6조 1항(결격사유)에 해

하는 특수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승급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승원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승단에서 인증하는 전문 습의사직에 복무한 자 △구족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 입학해 4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승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게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유치원 2년 근무 ‘3급 승가고시’ 가능

조계종 교육원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 “포교에 도움”

선원에서 4년제를 이수한 뒤 한 유치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군승이나 교법사로 2년 이상 복무해도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27일 회의를 열고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교육원은 회의에서 ‘선원에서 4년제’를 이수한 뒤 △전통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졸업 △전문선원에서 4년제 이상 승단 △구족계 수지 후 정구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위탁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 이수 △교육원에서 인정한 교육 교역자로 종단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복무 △구족계 수지 후 군승, 교법사 등으로 2년 이상 복무 △승단, 분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 2년 이상 △말사 총무직, 유치원, 상급 포교직으로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복무 △교육원장이 인정한 일반교육기관에서 운영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직지사 천일기도 법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고웅좌 숨결 이루고 전법 도생의 원력으로 억조창세에 천년의 세월 한결같이 고려 초 경잠선사께서 황악산자락 직지사 대가람에 천불 부처님을 조성해 모신지 역사적 시공을 넘어 오늘에 빛이 되어 수행과 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천일기도 법회에는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를 병행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의 큰 복 지으시기 바랍니다.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
 제46회 회향 및 제49회
 입재 천일기도 법회

- ◆일시 : 불기 2551(2007)년 5월 6일 (음력 3월 20일)
 -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 오전 9시
 - ▶천일기도법회 오전 10시
- ◆문의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우740-812)
- ◆종무소 : ☎ 054)436-6013, 6174 /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 합장